『燕彙』의 이본 검토를 통한 조선후기 연행록의 유통과 전승*

노 경 희**

1. 들어가며
2. 『燕彙』의 이본 전승 상황
3. 『연휘』 수록 개별 연행록의 이본 전승 상황
 1) 김창업의 연행기록: 『燕行壎篪錄』, 『燕行日記』, 『연힁일긔』
 2) 홍대용의 연행기록: 『湛軒說叢』, 『湛軒燕記』, 『을병연행록』
 3) 박지원의 연행기록: 『熱河日記』, 『열하일긔』
4. 『연휘』의 유통과 전승이 지니는 의미

초록: 조선문인들의 연행 체험은 '연행록'이라는 특정한 양식의 문학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서로 소통되면서 향유되어 왔다. 즉, 연행록을 통해 당대의 조선문인들은 연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후대의 문인들은 전대 문인의 연행록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연행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중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1712~3), 홍대용의 『담헌연기』(1765~6), 박지원의 『열하일기』(1780)는 수백 편에 이르는 연행록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작품은 조선시대에 이미 『연휘(燕彙)』라는 제명으로 묶이어 전승되고 있어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연휘』와 그 관련 자료들에 대해 각 연행록의 필사본/활자본, 한문본/한글본의 전승 상황을 고찰하여, 조선후기 이들 연행록이 유통되고 전승된 구체적인 실상을 살피었다. 그리고 이들 자료 전승에 있어 특징적 사항으로 ① 조선후기 필사본 유통, ② 한글본 편찬, ③ 근대 연활자본 간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조선후기 출판문화사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연행록, 『연휘』,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 전승, 유통

---

* 이 논문은 2011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신임교원정착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조교수.

1. 들어가며

조선왕조 5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조선 조정은 명과 청나라에 매년 3차례 정기 사절단, 특별한 경우의 임시 사절단 등 1000회를 훨씬 상회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연행록'이라 하면, 사신단의 일원이 한양을 떠나 북경에 도착해 사신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적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 500여종이 넘고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 연행록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같은 목적의 저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창작을 보였던 작품군으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1] 이렇게 수백 종에 이르는 연행록 가운데 손꼽이는 작품 3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본고에서 소개하는 『燕彙』라는 연행록 모음집 속의 『老稼齋燕行日記』, 『湛軒說叢』, 『熱河日記』가 그것이다.

이 세 연행록이 조선 후기에 이미 대표적인 연행록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은 1832년 청나라를 방문한 金景善의 연행기록 『燕轅直指』 서문의 "연경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행문을 남겼는데, 그중 三家가 가장 저명하니, 곧 老稼齋 金昌業, 湛軒 洪大容, 燕巖 朴趾源이다"라는 언급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연휘』는 그의 발언이 실제로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현재 국내외 도서관에 『연휘』의 이본이 여러 종 확인되는데, 정식 간행본은 없고 모두 필사본의 형태만 전한다. 세 연행록이 한 책으로 묶여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 일본의 동양문고에서만 발견되며, 그 외로 홍대용과 박지원의 연행록만 묶여 있거나, 낙질로 발견되는 경우가 몇 건 더 있다. 또한 별도의 서발문이 없어 편찬자와 편찬경위에 대한 정보가 전하지 않고 있다. 즉, 이 『연휘』라는 연행록 모음집은 누가, 어떠한 의도로, 어떤 책들을 모아 엮은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존재를 통해 연행의 체험이 '연행록'이라는 특정한 양식의

1) 최근의 연행록 연구에 대해서는, 대동한문학회, 2011 『대동한문학』 제34집(2011.6.)의 특별기획 「연행록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 실린 6편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전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연행록을 통해 연행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연행을 간접 체험 할 수 있으며, 연행을 떠나는 문인들은 전대 문인의 연행록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연행을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인 여행 기록이 조선후기에 어떠한 양상으로 유통되고 전승되었는지 그 경로의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나 『연휘』에 수록된 연행록들은 조선문단에서 가장 유명한 연행록들이었기에, 이들의 유통과 전승 양상을 살피는 것은 곧 조선후기 연행록의 流傳 양상을 살피는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정식으로 간행되지 못한 서적들의 유통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연휘』 자료들의 이본들을 검토함으로써 조선후기 연행록의 流傳 상황에 대해 그 구체적인 실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연행의 체험과 기록이 어떻게 당대의, 그리고 후대의 독자들에게 전승되고 향유되었는지, 그 사례 중 하나를 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燕彙』의 이본 전승 상황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이 수많은 연행록 중에 대표적인 연행록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1832~3년에 연행을 다녀온 金景善(1788~1853)의 연행기록, 『燕轅直指』에서 그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문에서 김경선은 이 세 연행록이 당시 연행록 중 가장 유명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연행록들의 글쓰기 방식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체험을 반영하여 이들 연행록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다고 하였다. 즉, 기록을 매개로 하여 전대문인과 후대 문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체험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연경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행문을 남겼는데, 그중 三家가 가장 저명하니, 곧 노가재 김창업, 담헌 홍대용, 연암 박지원이다. 역사서의 체례로 말하면 노가재는 편년

체에 가까운데 평순하고 착실하여 조리가 분명하고, 홍담헌은 기사체를 따랐는데 전아하고 자세하며, 박연암은 전기체와 같은데 문장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해박하다. 모두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각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이어 기행문을 쓰려는 자가 또한 어떻게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 다만 그 沿革의 차이로 인해 기록이 맞지 않거나, 답습을 서로 피하고자 하여 자세함과 간략함이 간혹 크게 다르다. 참으로 두루 찾아보고 이리저리 대보며, 서로 참고하여 절충하지 않으면 그 요체를 얻을 수 없으니, 보는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결점으로 여겼다.

임진년에 내가 三使 중의 한 사람으로 뽑혀 7개월에 걸쳐 다녀왔는데, 산천, 道里, 인물, 謠俗 및 고금 사실의 수집할 수 있는 것과, 사행 일의 시말 및 언어 문자 중에 상고하여 증거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 모으고 기록하였다. 체재는 위 三家에 준하여 각기 그 한 가지 체재를 취하니, 노가재가 날(日)을 달(月)에다 붙이고 달을 해(年)에다 붙인 것과 담헌이 사항마다 본말을 갖춘 것, 연암이 간혹 자기 의견으로 논의를 세운 것이 그것이다. 연혁에서 예와 지금이 서로 다른 것은 그 전말을 갖추어 기술하여 보는 사람의 의심이 풀리게 하였고, 서로 도습을 면하기 어려운 곳은 전인들의 말을 그대로 써서 전인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차지하게 하였거니와, 그 표현이 장황하여 어구의 세련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전인들의 기술로도 이미 갖추지 못하였던 것이니, 어찌 나의 역량이 미칠 바이겠는가?

그러므로 의술가에 비유하면, 이것은 여러 의술가의 학설을 모아 종합하고, 증세에 따라 처방문을 낸 直指方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책이 완성되자 『연원직지』라 이름 붙이니, 모두 여섯 권이다. 뒤에 이 사행을 떠나는 사람이, 조정을 떠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일을 겪을 때마다 상고하고, 장소를 만날 때마다 참고하여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길을 안내하게 된다면, 혹은 그 간편함을 자랑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2)]

---

2) 金景善, 『燕轅直指』, 「燕轅直指序」 "適燕者多紀其行, 而三家最著, 稼齋金氏[金昌業], 湛軒洪氏[洪大容], 燕巖朴氏也[朴趾源]. 以史例則稼近於編年, 而平實條暢, 洪沿乎紀事, 而典雅縝密, 朴類夫立傳, 而贍麗閎博. 皆自成一家, 而各擅其長. 繼此而欲紀其行者, 又何以加焉. 但其沿革之差舛, 而記載隨而燕郢, 蹈襲之互避, 而詳略間或逕庭, 苟非遍搜旁据, 以相參互而折衷之, 則鮮能得其要領, 覽者多以是病之. 歲壬辰, 余充三行人, 七閱月而往還, 山川道里, 人物謠俗, 與夫古今事實之可資採摭者, 使事始末, 言語文字之間, 可備考據者, 無不窮搜而悉蓄, 隨卽載錄, 而義例則就準於三家, 各取其一體, 卽稼齋之日繫月月繫年也, 湛軒之卽事而備本末也, 燕巖之間以己意立論也. 至於沿革之古今相殊處, 備述其顚委, 爲覽者釋疑, 蹈襲之彼此難免處, 直書其辭意, 俾前人專美, 若夫張皇鋪敍, 求其辭句之工鍊, 則非直前述已備, 又豈自量所及, 然則比之醫家, 此不過集諸家說而隨證立方, 如直指方耳. 故書成而名之曰燕轅直指, 凡六卷, 後之有此行者, 自辭陛暨反面, 無日不臨事而攷閱, 對境而參證, 有如指掌之按行, 則或可翊其簡便, 而不爲無助也否."

김경선은 서문에서 세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다. 먼저 연행록 중 가장 저명한 것으로 김창업과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이 꼽히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 연행록이 각기 장단이 있어 함께 비교하고 절충하지 않으면 그 요체를 얻을 수 없다고 아쉬워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이 연행을 다녀와서 수집한 자료들을 위의 세 연행록의 체제 중 장점들만 본받아서 기록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옛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살렸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록은 세 사람의 연행록을 종합한 것으로 향후 연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여기서 살필 수 있는 모습은 김경선이 연행을 떠나기 전에 선인들의 연행 기록을 참고하고, 이후 자신의 체험을 더하여 새로운 연행록을 만들었고, 그것이 후대 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태도이다. 이렇게 전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정리하고, 이를 후대에 전하고자 한 것은 조선시대 연행을 떠난 이들이 연행록을 기록하였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 할 것이다.

김창업과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은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연행록이었던 만큼 여러 종류의 필사본들이 유통되었다. 먼저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책 표지에 '燕彙'라는 제명이 적혀 있는 필사본들의 이본을 검토하기로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연휘』 자료들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휘』 자료 목록
① 일본 東洋文庫本: 『稼齋說叢』(6책), 『湛軒說叢』(6책), 『燕巖說叢』(8책)
② 일본 교토대 가와이(河合)문고본: 『가재설총』(5권 5책)
③ 미국 버클리대 아사미(淺見)문고본: 『열하일기』(26권 12책), 『담헌설총』(6책)
④ 연세대학교 소장본: 『열하일기』(26권 4책), 『담헌설총』(2책)
⑤ 국민대학교 소장본: 『담헌설총』(1책 零本)

'연휘'라는 제명이 표제에 적힌 자료들은 현재 국내외로 몇 종의 이본이 전하고 있다. 해외에는 일본의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본과 교토대 가와이(河合)문고본, 미국 버클리 아사미(淺見)문고 소장본이 있으며, 국내에 연세대와 국민대 소장본이 있다. 특기할 사항은 각 연행록의 제명이 대부분 '說叢'이라 되어 있다는 점이

다. 이는 김창업의 「연행일기」와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개별 필사본으로 전할 경우 '설총'이라는 제명이 쓰이는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다만, 『담헌설총』의 경우 '연휘'라는 제명이 표제에 없는 자료들도 규장각 등에 전하고 있어, '설총'이라는 제명과 『연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완정한 형태 소장본은 총 20책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동양문고본으로, 김창업의 연행록인 『가재설총(「연행록」)』 6책, 홍대용의 연행록인 『담헌설총』(「연행잡기」 4책+「건정필담」 2책) 6책, 박지원의 연행록인 『연암설총』(「燕行陰晴」 2책+「열하일기」 6책)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버클리소장본은 총18책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26권 12책)와, 홍대용의 『담헌설총』(「연행잡기」+「건정필담」)(6책)으로 구성되었다. 연세대본은 또한 박지원의 『열하일기』(26권 4책)와 홍대용의 『담헌설총(「연행잡기」+「건정필담」)』(2책)으로 총 6책이 전하고 있다. 국민대본은 '담헌연휘'라는 표제에 「건정필담」 坤책만 전하는 零本이다. 교토대 소장본은 김창업의 연행록인 『가재설총』(5권 5책)만 전한다. 표제에는 '燕彙'라 되어 있고, 권수제는 '稼齋說叢'이다. 이상의 이본들은 모두 필사본의 형태로 전하며, 책수와 구성,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필사의 저본으로 삼은 책들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들 자료들은 세 종류의 연행록이 하나로 묶여 전하거나, 두 가지 혹은 한 가지 연행록만 따로 전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두 가지 이하로 전하는 경우는 원래 세 종류 모두 전하던 것이 중간에 분리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하는 자료만으로는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전하는 『연휘』의 이본 상황을 볼 때, '동양문고본'과 같이 원래는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을 모두 엮은 것이 가장 완정한 형태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더해 다른 연행록이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지만, '연휘'라는 제명 하에 이 세 연행록 이외의 작품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노가재연행일기』, 『열하일기』와 『담헌설총』 모두 조선시대에 간행되지 못하고 각각 필사본으로만 전하였기에, 이본 간의 비교를 통한 원전의 복원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면에서도 이들 소장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연휘』 수록 개별 연행록의 이본 전승 상황

이 장에서는 『연휘』에 실린 세 가지 연행록인 김창업과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기록의 개별적인 이본 전승 상황을 살피기로 한다. 이 자료들 모두 조선시대에는 필사본의 형태로만 전승되었으며, 근대에 들어와서야 연활자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개별 작품의 이본 비교를 위해 앞서 언급한 『연휘』로 묶인 연행록들도 작가별로 분리하여 다른 이본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1) 김창업의 연행기록: 『燕行壎篪錄』, 『燕行日記』, 『연힝일긔』

김창업은 1712년(숙종 38) 동지사겸사은사로 떠나는 형 金昌集(1648~1622)의 자제군관으로 북경에 다녀왔다. 그는 이 연행과 관련하여 연행 기간 중에 지은 한시를 모은 「燕行壎篪錄」과 연행의 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지은 『연행일기』를 남기었다.

이중 「연행훈지록」은 그의 문집인 『老稼齋集』에 수록되었다. 원래는 연행 기간 중 402수의 한시를 지었다고 하지만 후손들이 간행한 문집에는 137수만 실려 있다. 그 외로 함께 연행을 간 형 김창집의 문집 『夢窩集』에 실린 같은 제명의 「연행훈지록」에 김창업의 차운시가 77수 실렸는데, 여기에는 앞서 김창업의 「연행훈지록」에 실리지 않은 작품이 39수가 있어, 현재 모두 178수의 연행시가 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글본 『연행일기』에도 몇 작품이 국역되어 실려 있기도 하다.[3)]

『연행일기』는 김창업이 1712년 11월 3일 한양을 출발하여 12월 27일 북경에 도착, 다음해 3월 30일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일의 사건을 기록한 일기체 형식의 기행문이다. 김창업은 척화파로 대표되는 김상헌의 종손으로서, 기본적인 태도

3) 「연행훈지록」에 대해서는 윤경선, 1997 「18세기초 장동 김씨 일문의 연행체험-김창집의 「연행훈지록」을 중심으로」(『한국한문교육』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327-330면) 참조.

는 청을 이적국가로 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의 발달된 문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오늘날 『노가재연행일기』는 한문본과 한글본이 모두 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연휘』에 수록된 산문 연행기록을 중심으로 개별 연행기록의 전승에 대해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 한문본
① 『연휘』 소재 『가재설총』: 일본 동양문고(6책),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5책)
② 『老稼齋燕行日記』: 필사본(6책), 규장각 소장(奎 4538)
③ 『燕行日記』: 필사본(4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④ 『燕行日記』: 필사본(6책), 장서각소장
⑤ 『燕行日記』: 필사본(5책 零本(1책결)), 일본 동경대 아가와(阿川)문고 소장
⑥ 『稼齋燕行錄』(「朝鮮群書大系續續」 제7집): 연활자본, 朝鮮古書刊行會(1914)
■ 한글본 『연힝일긔』
① 『연힝일긔』: 필사본(1책 93장), 규장각 소장(가람 古 915.2-G415g)
② 『연행일기』: 필사본(3책 零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한문본 『燕行日記』

한문본은 국내에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비롯하여 해외에 일본 동경대 아가와문고 및 앞서 '연휘'라는 제명으로 일본 동양문고와 교토대 가와이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6책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립중앙도서관본의 경우 4책 완질본이다. 우선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장각본을 보면 표제는 '稼齊燕行錄'이며, 목차는 一行人馬渡江數, 方物歲幣式, 鳳城瀋陽北京山海關所用禮單人情都合數, 入京下程, 表咨文呈納, 鴻臚寺演儀, 朝參儀, 齋回物目, 上馬宴, 山川風俗總錄, 往來總錄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후 往來日記를 적고 있는데 제1책은 12월 15일 요동의 寧遠衛에 이르기까지의 기록, 제2책은 다음날 영원위 출발에서 12월 29일 북경 도착까지의 기록이다. 제3·4책은 1813년 1월 1일 新年朝賀에서 2월 14일까지의 북경유람일기이다. 제5책은 北京發에서 2월 29일 十三山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며, 제6책은 3월 1일 醫巫閭山 유람

에서 3월 30일 入京까지의 기록이다.

다음으로 4권 4책으로 이루어진 국립중앙도서관본을 보면, 제1책은 규장각본의 제1권과 같고, 제2책은 책머리에 '燕行日記 卷之二'라는 권수의 차례가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12월 16일부터 계사년 정월 17일까지를 싣고 있다. 이는 규장각본의 제3권과 4권의 절반에 해당한다. 제3책은 책이름만 '연행일기'라고 적혀있고 권수의 차례가 밝혀져 있지 않아 정확한 권차를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이 1월 18일부터 시작되어 2월 18일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권3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규장각본의 경우 4권 후반부터 제7권의 앞부분에 해당된다. 제4책은 역시 책머리에 "燕行日記 卷之四"라는 권차가 밝혀져 있으며, 내용은 2월 19일부터 30일까지의 기록이다. 이는 규장각본의 제7~9권에 해당한다.

일본의 동양문고 소장본은 『연휘』로 묶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위의 규장각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제는 '燕彙'라 되었으며 오른쪽 끝에 '稼齋錄'이라 적혀있고, 권수제는 '稼齋說叢'이다. 별도의 권차 표시는 없으며, '一行人馬渡江數'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하고 있다.

이 『연행일기』는 후대에 김창업의 문집 『노가재집』이 간행될 때 수록되지 못하고 조선시대에는 필사본의 형태로만 전하다가, 1910년대 들어와 일본인 釋尾春芿(토키오 슌죠, 1875~?)가 설립한 조선 고서 출판 단체인 조선고서간행회에서 연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4] 이 단체에서는 1909년부터 1916년까지 正·續·續續·別集으로 4기에 걸쳐 총 28종 82책의 한국고전을 '朝鮮群書大系'라는 총서로 발간하였다. 이 총서 중 1914년에 간행된 續續 제7집이 바로 『稼齋燕行錄』이다. 여기서 이 자료가 일본지식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음을 알 수 있다.

※ 한글본 『연힝일기』

한글본 『연힝일기』는 현재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전하고 있다.[5]

---

4) 櫻井義之, 1979 『朝鮮研究文獻志-明治·大正編』, 龍溪書舍, 27-32면.

5) 김창업의 한글본 『연힝일기』에 대해서는 임창순, 1967 「연힝일기-김창업의 연행일기 국역

먼저 규장각 소장본을 보면, 1책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문본『연행일기』중 일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연힝일기권지일동힝녹노가지일긔」에는 一行人馬渡江數와 方物歲幣式의 내용 중 일부가 국문으로 적혀 있고,「왕닉총녹서너딕문벗기다」에는 往來總錄 일부와 귀로에서 角山과 閭山 등 명산 유적지를 답사한 대목 중 일부 내용이 실려 있다.「연힝일긔권지구죵」에는『燕行日記』권9 중 3월 5일 이하 千山 유람 대목이 적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1, 2, 4권만 전하는 영본이다. 1권은 임진년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록이며, 2권은 임진년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록, 4권은 계사년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기록이다. 한문본과 비교해보면 각권의 여행 날짜 수가 다르게 편집되어 있다. 그 외로도 한문본과 비교할 때 내용상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국문본에는 한시도 국문으로 번역되어 실려 있는데, 이 중에는 한문본에 실리지 않은 작품도 있다. 또한 기사의 내용도 국문본이 더 상세하게 서술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국문본에 없는 내용이 한문본에만 실려 있기도 하다.[6]

또한 국립중앙도서관본 2권 권말 12월 17일조에는 필사기가 적혀 있어 책의 전승 경위에 대한 단서를 발견 할 수 있다.

> 칠ᄃᆞ조/이 칙이 노가지겨서 지으신 칙이니 허슈이 굴니지 말나. 정미년 날리의 ᄒᆞᆫ권을 일코 뉘게 맛겨더니 간슈를 졸못ᄒᆞ여 두권을 쥐가 쏘라시니 앗갑다.

첫 머리의 '칠대조'라는 언급에서 이 필사기를 적은 7대손을 찾으면 明圭라 추정되며, 이 때 정미년은 1907년으로 당시 군대해산 명령에 따른 난리라 짐작할 수

본」『국회도서관보』7월호와 이장우, 1986「「稼齋燕行錄」과「연행일기」-노가재 김창업의 국한문 연행록」,『국회도서관보』187호 참조.

6) 김창업 연행록의 국문본과 한문본의 상세한 비교에 대해서는 이장우, 위의 논문, 84-90면 참조. 여기에서 이장우는 한문본의 편찬 시기가 연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일로 추정되며, 국문본의 기사 서술이 더 상세하고 부연설명이 많은 경우가 있어 국문본이 먼저 지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있다. 이상의 필사기에서 국문본 『연힝일기』가 후손가에게 전승되고 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7)]

2) 홍대용의 연행기록: 『湛軒說叢』, 『湛軒燕記』, 『을병연행록』

홍대용은 1765년 서장관으로 임명된 숙부 洪檍(1722~1809)을 따라 꿈에 그리던 연행을 떠난다. 홍대용의 연행은 1,000여회에 이르는 연행 사절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그의 연행이 그 이전의 북벌 의식에 젖어 연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조선 문인들의 태도를 벗어나 새로운 태도로 연행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홍대용은 청의 발달된 문물을 긍정하고 해외 문사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구했는데, 이는 이전 시대 조선문인들은 물론이요, 당시 조선문인들에게도 일면 받아들여지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는 연행을 통해 자신이 꿈꾸던 것들을 이루어내었고, 무엇보다 북경의 건정동에서 이루어진 강남 문인들과의 국경을 초월한 교유는 당시 북학파 문인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이후 연행의 성격을 완전히 변모시키기에 이른다. 홍대용의 연행기록 역시 현재 한문본과 한글본이 모두 전하고 있다.

■ 한문본
① 『연휘』 소재 『담헌설총』: 필사본, 연세대(2책), 국민대(「건정필담」 1책(제2권) 零本), 일본 동양문고(6책), 버클리본(6책)
② 『湛軒說叢』: 필사본(6책), 규장각 소장(奎 4908)
③ 『湛軒燕記』: 필사본(6권 6책), 규장각 소장(奎 7126)
④ 『湛軒燕行記』: 필사본(1책),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⑤ 『燕記』: 연활자본(『湛軒書』(7책)에 포함), 신조선사 간행(1939)
■ 한글본
① 『연행록』: 필사본(20권 2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② 『을병연행록』: 필사본(10권 10책),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소장

7) 국문본 『연힝일기』의 필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임창순, 앞의 논문, 65면과 이장우, 앞의 논문, 81-2면 참조.

홍대용은 연행을 다녀온 후 3가지 구성형태의 연행록을 남기었다. 한문으로 쓴 『燕記』, 한글로 쓴 『을병연행록』, 북경에서와 귀국 이후 엄성 등과 주고받은 필담과 편지를 모아 엮은 『會友錄』이 그것이다. 여기서 『회우록』은 홍대용의 문집 『담헌서』에 있는 「乾淨衕筆談」과 「杭傳尺牘」을 묶은 것을 지칭한다. 「건정동필담」은 홍대용이 북경에서 만난 강남의 문인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적은 필담 기록을 묶은 것이며, 「항전척독」은 이후 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것이다. '회우록'이라는 이름은 후에 박지원이 「건정동필담」에 서문을 써주면서 붙인 이름이다.

이들 연행록은 각기 그 성격에 따라 언어와 문체, 체제가 다르다. 『연기』는 연행 중에 겪은 체험과 견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잡기와 잡록의 형식으로 묶은 것이며, 『을병연행록』은 일기체 형식으로 서울 출발에서 귀국까지 여행의 전 과정을 자세히 적은 기행문이다. 『회우록』은 연행 중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던 중국 문인과의 만남 중에 주고받은 자료를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당시 교류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이렇게 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문자로 연행록을 편찬한 시도는 연행록의 역사상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홍대용의 체험이 그만큼 그간 다른 조선 사신들과 비교할 때 폭넓고 다양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형식 안에 자신의 체험을 다 담을 수 없었기에 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연행록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연행기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서지사항을 살피기로 한다.

※ 『담헌설총』

『연휘』에 수록된 홍대용의 연행록은 '湛軒說叢'이란 제명 하에 「燕行雜記」와 「乾淨筆譚」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행잡기」는 홍대용이 1765년 11월부터 1766년 봄까지 서장관으로 중국에 가서 견문한 바를 주제별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다. 「건정필담」은 홍대용이 북경에서 의형제를 맺었던 항주 출신의 문인 陸飛, 嚴誠, 潘庭筠 등과 북경의 건정동에서 만나 귀국할 때까지 주고받은 필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버클리본 『담헌설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연휘'라는 제명 하에 총 18책으로 이루어졌는데, 1~12책은 박지원의 연행일기인 『연암설총』이고, 『담헌설총』은 이후 13~18책으로 「연행잡기」 6책과 「건정필담」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책: 「燕行雜記」(盤山, 夷齊廟, 桃花洞, 角山寺, 望海亭, 射虎石, 鳳凰山, 京城制, 太和殿, 五龍亭, 太學, 雍和宮, 觀象臺, 東天主堂, 法藏寺, 弘仁寺, 東嶽廟, 隆福市, 琉璃廠, 花草鋪, 暢春園, 圓明園, 西山, 虎圈, 萬壽山, 五塔寺, 入皇城, 禮部呈表, 鴻臚演儀, 正朝朝參, 元宵觀燈, 東華觀射, 城南跑馬, 城北遊, 方物入闕, 京城記略)

14책: 「燕行雜記」(沿路記略, 幻術, 場戲, 市肆, 寺觀, 飮食, 屋宅, 巾服, 器用, 兵器, 樂器, 畜物, 留館下程, 財賦總略, 包銀, 橐裝, 路程)

15책: 「燕行雜記」(吳彭問答, 蔣周問答, 劉鮑問答, 衙門諸官, 兩渾)

16책: 「燕行雜記」(王擧人, 沙河郭生, 十三山, 宋擧人, 舖商, 太學諸生, 張石存, 葛官人, 琴鋪劉生, 藩夷殊俗, 拉助敎, 鄧汶軒, 孫蓉洲, 撫寧縣, 賈知縣, 貞女廟學童, 宋家城, 孫進士, 周學究, 王文擧, 希員外, 白貢生)

17책, 18책: 「乾淨筆譚」

그 외로 『연휘』에 묶인 『담헌설총』이 연세대와[8] 국민대, 일본의 동양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내용상 버클리본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담헌설총』의 경우 다른 연행록과 달리 이본 간에 차이가 적은 편이다.

※ 『담헌연기』

홍대용의 연행기록은 앞서의 『담헌설총』 이외로 1939년에 신조선사에서 연활자로 간행된 문집 『담헌서』 권7-10에 '燕記'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것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전승된 필사본으로 규장각소장 『담헌연기』가 있다. 각 책들을 비교해 보면, 이본에 따라 편차상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규장각본 『담헌연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과 제2책은 「담헌연기」, 제3

8) 연세대 소장 『담헌설총』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Ⅲ(평민사, 2005)에 실린 해제를 참조할 수 있다.

책과 제4책은 「연행잡기」, 제5책과 제6책은 「건정필담」이라는 異題가 달려 있다. 「담헌연기」에는 다양한 인물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 견문이 기록되어 있고, 「연행잡기」에는 명승지에 대한 유람기와 북경 풍물 및 사행과 관련한 물품 출납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건정필담」에는 북경 건정동에서 육비·엄성·반정균 등과 필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연활자본 『담헌서』에 실려 있는 「燕記」과 비교해보면 내용과 항목의 순서에 거의 차이가 없다.

『湛軒燕記』(奎 7126)
第1册: 目錄, 吳彭問答, 莊周問答, 劉鮑問答, 衙門諸官, 兩渾, 王擧人, 沙阿郭生, 十三山, 宋擧人, 鋪商, 太學諸生, 張石存, 葛官人, 琴鋪劉生.
第2册: 目錄, 藩夷殊俗, 拉助敎, 鄧汶軒, 孫蓉洲, 撫寧縣, 貞女廟學童, 宋家城, 孫進士, 周學究, 王文擧, 希員外, 白貢生, 沿路記略, 京城記略.
第3册: 目錄, 望海亭, 射虎石, 盤山, 夷齊廟, 桃花洞, 角山寺, 鳳凰山, 京城制, 太和殿, 五龍亭, 太學, 雍和官, 觀象臺, 東天主堂, 法藏寺, 弘仁寺, 東嶽廟, 降福市, 琉璃厰, 花草鋪, 暢春園, 圓明園, 西山, 虎圈, 萬壽寺, 五塔寺, 八皇城, 禮部呈票, 鴻臚寅儀, 正朝朝參, 元宵燈炮, 東華觀射, 城南跑馬, 城北遊, 方物八關.
第4册: 目錄, 幻術, 場戲, 市肆, 寺觀, 飮食, 屋宅, 巾服, 器用, 兵器, 樂器, 畜物, 留館下程, 財賦總略, 包銀, 橐裝, 路程.
第5-6册: 乾淨筆譚.

※ 한글본 『을병연행록』

한글본 연행록인 『을병연행록』은 홍대용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9] 현재 숭실대 기독교박물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숭실대본은 표제가 '湛軒燕錄'(10권 10책)이며, 장서각본은 표제가 '燕行錄'(20권 20책)이다. 숭실대본은 매권말미에 필사날짜와 경위가 밝혀져 있다. 장서각본은 숭실대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그 내용은 배의 분량이 되는데, 작자의 후손들이

9) 한글본 『을병연행록』의 주해본과 현대어역본으로는 다음의 성과가 있다. 소재영 외 주해, 1997 『(주해)을병연행록』, 태학사; 김태준 외 역, 2001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정훈식, 2012 『을병연행록』, 경진.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829~33년 사이에 손자 明厚와 良厚가 『을병연행록』의 필사작업을 하였다고 한다.[10] 여기서 앞서의 『노가재연행일기』와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후손가에서 전승되고 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한문본인 『湛軒燕記』가 종전의 규범적 표현을 벗어나 사실 전달에 힘쓴 것에 비하여, 국문본은 신변의 일이나 개인적 감회를 정감 있는 필치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문본과 국문본의 독자층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 곧 국문본의 경우 독자층의 범위가 여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적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시 문단에서 한문과 국문의 역할과 성격이 각기 다른 영역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박지원의 연행기록: 『熱河日記』, 『열하일긔』

『열하일기』는 1780년(정조 4)에 연암 박지원(1737-1805)이 삼종형인 박명원의 수행원으로 청나라 건륭황제의 고희를 축하하기 위하여 중국에 들어가 盛京·熱河·北京 등지를 돌아보고 돌아올 때까지 겪은 일, 중국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느낀 일, 청의 문물제도 등을 기록한 연행일기이다. 『열하일기』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 내용의 파격성으로 인해 문단에서 큰 반발을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이에 정식 간행본이 나오지 못하였으나, 현재 가장 많은 필사본 이본이 전하는 자료로 당시 널리 유행하였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한문본
① 『연휘』 소재 『열하일기』: 연세대(4책), 일본 동양문고(8책), 버클리본(12책)
② 『열하일기』: 조선후기 필사본 수십 여종
③ 『열하일기』, 연활자본(26권), 조선광문회(1911)
▣ 한글본
① 『열하일긔』: 동경대 소창문고 소장
② 『열하긔』: 명지대 소장본(1책 零本)-徐浩修·李百亨의 경술(1790) 열하기행기 합본

10) 소재영, 위의 책, 816면.

현재 『열하일기』 한문본은 수십 종에 이르는 필사본 이본이 전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계열별로 분류하면 '초고본 계열', '「열하일기」 계열', '『연암집』 「외집」 계열', '『연암집』 별집 계열'로 나눌 수 있다.[11] 『열하일기』의 이본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연휘』에 들어간 『열하일기』의 이본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현전하는 『연휘』 소재 「열하일기」의 경우 두 종류 계열본이 저본으로 사용되었는데, '초고본'과 '『연암집』 외집 계열'의 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된 것들이 그것이다.

※ 『연휘』 수록 『열하일기』

① 동양문고 소장본

먼저, 동양문고 소장본의 수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책: 권수제-燕行陰晴, 「渡江錄」/「盛京雜識」
2책: 권수제-燕行陰晴, 「馹汎隨筆」/「關內程史」
3책: 권수제-熱河日記(이하 동일), 「漠北行程錄」/「太學留館錄」
4책: 「傾蓋錄」, 「黃敎問答」/「行在雜錄」, 「班禪始末」/「戱本名目」
5책: 「忘羊錄」, 「筆談義例附」(후기 필사본에서 審勢編으로 바뀜), 「札什倫布」
6책: 「幻戱記」, 「象記」, 「避暑錄」
7책: 「銅蘭涉筆」/「鵠汀筆譚」
8책: 〈夜出古北口記〉, 〈一夜九渡河記〉, 〈萬國進貢記〉, 〈乘龜仙人行雨記〉, 〈萬年春燈記〉, 〈梅花砲記〉, 〈蠟嘴鳥記〉, 「口外異聞」, 「金蓼小抄」

이 자료는 무엇보다 '초고본 계열' 『열하일기』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자료 이외의 『연휘』 소재 「연암설총」은 모두 '『연암집』 「외집」 계열' 필사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이 자료가 '초고본 계열'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였음은 다음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권수제가 '燕行陰晴'이라 표기된

11) 金明昊, 2010 「『열하일기』 이본의 재검토」, 『동양학』 48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점을 들 수 있다. 『열하일기』는 처음에 '연행음청'이라 불리다가 후에 '열하일기'라 불리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漠北行程錄」에는 『열하일기』 권1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동양문고의 자료는 '燕行陰晴'에서 '열하일기'로 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열하일기』 초기 자료를 저본으로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외로 「審勢編」을 '筆談義例附'라고 하였으며, 〈象記〉, 〈戲本名目〉이 「山莊雜記」에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편으로 취급되고, 〈夜出古北口記〉 이하 7편의 기문이 「산장잡기」라는 편명 아래 묶이지 않은 점 등도 이 자료가 초고본 계열임을 확인해준다. 『열하일기』 초고본과 관련해서는 근래에 단국대 연민문고에서 『열하일기』 초고본에 해당하는 이본들이 대거 공개되어 참고할 수 있다.[12]

그 외의 서지사항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표제는 '燕巖錄'이며, 권수제는 '燕巖說叢'이다. 아직 卷數는 매겨져 있지 않으나, 한 책 안에서는 권을 분류하여 권별로 목록을 싣고 있다. 그리고 본문 상단에 주석이 있다. 필사 상태가 좋고 『가재설총』, 『담헌설총』과 함께 한 질로 만들어진, 현전하는 가장 완정한 형태의 『연휘』라 할 수 있다.

동양문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휘』에 들어가는 개별 연행록 자료들의 저본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들 연행록이 정식 간본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필사본의 형태로만 전승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에 『연휘』의 고정 형태의 사본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김창업과 홍대용, 박지원의 세 연행록을 묶은 책을 『연휘』라 보는 인식이 존재했을 뿐, 특정한 저본을 고집하지 않고 수중에 들어오는 사본들을 저본으로 삼아 필사하는 느슨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②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본

12) 이에 대해서는 김명호의 위의 논문에 자세하다. 논문(14면)에서 연민문고 소장 『열하일기』 초고본 중 『行在雜錄』에서 '燕行陰晴'에서 '열하일기'로 체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나타나 참조할 수 있다.

버클리본『연휘』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책부터 12책까지는 박지원의『열하일기』이며, 13책부터 18책까지는 홍대용의『담헌설총』이다.『열하일기』제1책의 경우 계선이 있는 원고지에 필사되어 있고 필사상태가 좋지만, 그 이하의 책들과『담헌설총』은 모두 계선이 없는 종이에 필사되어 있다. 본문에 '붉은색/검정색'으로 비점과 권점이 찍혀 있고, 상단에 주석이 적혀 있기도 하다.

『열하일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서의『열하일기』는 본문 첫 머리에 '燕巖集 外集'이라 쓰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계열의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책: 권1「渡江錄」
2책: 권2「盛京雜識」(盛京雜識, 盛京伽籃記, 粟齋夜話, 商樓夜話, 古董錄, 遼東白塔記, 廣祐寺記, 舊遼陽記, 山川紀略, 遼東關廟記)
3책: 권3「馹汎隨筆」
4책: 권4「關內程史」
5책: 권5「漠北行程錄」, 권6「太學留館錄」
6책: 권7「還燕道中錄」, 권8「傾蓋錄」, 권9「黃敎問答」, 권10「班禪始末」, 권11「札什倫布」
7책: 권12「忘羊錄」, 권13「審勢編」
8책: 권14「鵠汀筆譚」, 권15「山莊雜記」
9책: 권16「幻戲記」, 권17「避暑錄」, 권18「行在雜錄」, 권19「戲本名目」
10책: 권20「口外異聞」, 권21「玉匣夜話」, 권22「金蓼小抄」
11책: 권23「黃圖紀略」, 권24「謁聖退述」, 권25「盎葉記」
12책: 권26「銅蘭涉筆」

③ 연세대 소장본

버클리본과 거의 유사하다.[13]

13) 연세대 소장『열하일기』에 대해서는『(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Ⅳ(평민사, 2005)에 실린 해제를 참조할 수 있다.

※ 한글본『열하일긔』

한글본『열하일기』는 현재까지 국내의 명지대와 일본 동경대 소창문고에서 2종이 전한다. 명지대본은 2권의 일부만 남아 있는 零本이고, 동경대본은 1, 2권이 모두 남아 있으며 분량도 명지대본 보다 훨씬 길다. 명지대본은 열하일기 중「太學留館錄」의 일부와「還燕道中錄」8월 20일까지의 일기를 싣고 있다. 동경대본은 6월24일자「渡江錄」첫머리부터 8월 20일까지의 일기뿐 아니라「幻戱記序」,「乘龜仙人行雨記」,「萬年春燈記」,「梅花砲記」,「萬國進貢記」,「御廐」,「回子館」,「天寧寺」,「法藏寺」,「藥王廟」,「玉匣夜話」부분까지 번역돼 있다. 단, 명지대본의 경우 徐浩修·李百亨 등이 1790년에 열하를 기행하고 쓴 기행문(한글본)이 합본되어 있어, 열하기행문 선집이자 한글기행문 선집으로서의 형식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4]

4.『연휘』의 유통과 전승이 지니는 의미

이상에서『연휘』와『연휘』에 들어간 개별 연행록의 전승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의 전승에 있어 특징적 사항으로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조선후기 필사본 유통
② 한글본 편찬
③ 근대 연활자본 간행

가장 먼저, 이들 연행록은 편찬된 당대는 물론, 그 이후로도 조선시대에는 정식으로 간행본이 나오지 못하고 필사본으로만 전승,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특히 김창업을 제외하고, 홍대용과 박지원의 경우 연행록 이외로 개인문집조

14) 김태준, 2001「『열하일기』한글본 출현의 뜻」,『민족문학사연구』19집, 민족문학사학회.

차 조선시대에 정식 간행되지 못하고 20세기 들어와 간신히 간행된 바 있다. 그러한 만큼 이들 연행록의 단독 간행은 더욱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할 것이다. 이는 김창업의 문집이 그의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 목판으로 간행되었음에도, 연행록이 빠졌던 사정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김창업의 시문은 아들 金彦謙, 金信謙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유고를 수습하였고, 이들의 부탁으로 저자의 족질 金時保가 刪定하였다. 김시보가 편정한 5권의 시집은 그 후 저자의 증손 金履翼이 1798년(정조 22)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판각하였다. 그러나 풍파를 우려한 나머지 印本을 유포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이어 1820년 정월 歲謁차 방문한 김조순은 金履翼에게 인본을 배포할 것을 청하였고 김이익은 3월에 김조순의 서문을 追刻하여 반포하였다. 그런데 이 문집은 전체가 시만을 수록하고 있어, 연행 관련 기록으로는 권5의 중간 부분부터 '燕行塤篪錄'라는 편명에 1712년 燕京에 다녀올 때에 지은 시작품 111題 137首만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원래 저자가 1715년 자편한 「연행훈지록」에는 기행문과 40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후손들이 문집을 산정하면서 기행문과 시 절반 이상을 산삭하고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단지 재정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 내용상의 검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의 연행록이 제대로 간행되지 못했던 사정에는 일차적으로 당시 조선의 출판 상황이 개인의 일기류까지 간행할 여건이 아니었음을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현전하는 500여 종의 연행록들 중 상당수가 필사본 유일본으로 전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자료가 조선시대 대표적인 연행록으로 꼽히고 한글본도 전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요의 독자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 출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연행록들이 내용의 파격성으로 인해 더욱 출판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열하일기』의 경우 당시부터 그 내용의 파격성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내

용의 파격성은 홍대용의 『담헌서』도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서적이 조선문단에서 쉽게 간행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현전하는 자료들을 보면 이들 연행록은 여타의 연행록과 비교할 때 다양한 필사본 이본이 전승되고 있으며, 3대 연행록으로 지칭되어 『연휘』와 같은 연행록선집의 형태로 유통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당시 조선의 서적 유통이 정식 간행본 이외로 필사본 유통에 상당히 큰 비중이 놓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00여종의 연행록 중 3편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작품들이 간본이 아닌 사본의 형태로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 출판계가 문인들의 관심을 받는 작품들을 곧장 출판하지 못하는 여건이었으며, 대신 그러한 서적들을 필사의 형태로 유통시키고 있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사실은 이들 연행록이 모두 한글본으로도 전승된다는 사실이다. 저자가 직접 쓴 것인지 후손들이나 다른 문인들이 번역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홍대용의 한글연행록인 『을병연행록』의 경우 저자 본인이 저술한 것이라 하며, 『노가재연행일기』와 『열하일기』의 경우 다른 문인들이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 추정된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이들 연행록 이외로도 한글본 연행록이 일부 전하고 있어, 당시 한글 독자층의 연행 체험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15] 특히 『을병연행록』과 『노가재연행일기』, 『열하일기』의 경우 연행록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었던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컸고, 이에 한글본까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이때도 정식 간행본은 없고 필사의 형태로만 존재했으며, 현전하는 필사본의 종수가 한두 종의 소량에 그치고 있는 사정을 보면, 한문본에 비해 훨씬 좁은 범위에서 유통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 김창업의 『연행일기』나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모두 후손가에서 전승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여기서 결국 이 연행록의 주독자층은 한문본의 경우 사대부 남성 문인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여

15)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명지대본 『열하일기』의 경우 徐浩修·李百亨 등이 1790년에 열하를 기행하고 쓴 기행문(한글본)이 합본되어 있어, 당시에 한글기행문 선집이 만들어질 정도로 연행록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기서 저자의 집안이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글 독자층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존재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 한문본과 한글본은 그 내용을 비교할 때 상당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완정한 형태의 자료가 전하는 홍대용의 연행기록의 경우 한문본과 한글본은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독자층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인지, 한문과 언문이라는 문자상의 차이점에서 비롯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문자와 작품 내용 간의 상관관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연행록은 1900년대 들어온 후, 근대의 연활자로 처음 정식 간행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수 있다. 홍대용과 박지원의 경우 개인문집도 조선시대에는 미처 간행되지 못하고 근대에 이르러서야 출간되었다. 홍대용의 『담헌서』는 저자의 자편고를 증보한 15책의 舊本을 5대손 洪榮善·鄭寅普·洪命憙 등이 참여하여 內集 4권, 外集 10권 합 7책으로 1939년에 신조선사에서 연활자로 간행한 것이 최초의 정식간행본이다. 박지원의 『연암집』은 1900~1년에 김택영이 금속활자 全史字로 일부를 초간한 것이 처음이며, 1911년에는 최남선이 「열하일기」 만을 따로 광문회에서 연활자판으로 간행하였고, 1932년에 저자의 후손인 朴榮喆이 경성의 大東印刷所에서 전집을 연활자로 간행한 것이 오늘날 널리 유통되고 있다. 또한, 김창업의 『연행일기』도 조선시대 후손들이 간행한 문집에는 포함되지 못하였고, 1914년에 이르러 일본인 간행인에 의해 조선고서간행회에서 연활자로 단독 출판되었다.

홍대용과 박지원 이외로도 정약용 등 조선후기 유명한 문인들 중 상당수 문인들의 유고가 당대에 정식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20세기 들어와 신식활자 기술이 도입된 이후 연활자로 간행된 사례가 많다. 이들의 문집이 조선시대에 제대로 간행되지 못한 점이 단지 개인의 문집을 사적으로 간행하기 힘들었던 조선의 출판업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이들의 문집에 담고 있는 내용의 파격성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 근대에 들어와 지식인들이 이들의 문집을 가장 서둘러 연활자로 간행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의 저작이 후대 문인들

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문집들의 '파급효과'와 '정식 간행'이 서로 괴리된 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이는 조선 최고의 연행록으로 꼽히는 이들의 연행기록이 필사본으로만 전하는 사정에 대한 연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휘』 연구에 있어 고찰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발견되는 『연휘』의 경우, 김창업 · 홍대용 · 박지원 3인의 연행록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애초부터 의도된 선집인가 하는 문제이다. 기실 '燕彙'라는 제명만 두고 보면 이는 '연행록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언급한 3인 이외 다른 연행록이 들어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휘'라는 제명으로 묶인 자료들 중 이 3대 연행록 이외 다른 작품은 발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이들 연행록이 함께 엮여서 유통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이 세 작품만 들어간 것이 원형이라 한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편찬 작업을 진행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에 김경선이 이들 세 연행록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연행록 저술에 기본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 되듯이, 『연휘』의 존재를 통해 조선후기 연행을 떠난 문인들에게 이 세 연행록이 하나의 지침 자료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차후 이들 3대 연행록이 조선후기 문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여, 『연휘』라는 자료가 어떤 의도로 편찬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연휘』에 들어간 연행록들의 저본이 이본에 따라 다른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열하일기』의 경우, 『연휘』 소재 자료 중 '초고본 계열'과 '『연암집』「외집」 계열'의 사본이 모두 발견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휘』의 가장 완정한 모습을 보이는 동양문고본에서 『열하일기』가 초고본을 저본으로 삼은 필사본인데 반해, 그 이외의 연세대본, 버클리본 등은 모두 『연암집』「외집」본을 저본으로 삼을 필사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에는, 아마도 이미 『연휘』라는 책은 세 연행록의 합집이라는 인식이 존재했고,

이에 주변에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사본을 저본으로 필사하여 『연휘』를 편찬하는 풍토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조선후기 필사본으로 전승되는 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필사, 유통되었는지 그 경로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문투고일(2012. 10. 8), 심사일(2012. 11. 14), 게재확정일(2012. 12. 11)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연휘』 관련 자료

『燕彙』(필사본), 일본 東洋文庫 소장(「稼齋說叢」, 「湛軒說叢」, 「燕巖說叢」).
『燕彙』(필사본), 일본 교토대 가와이(河合)문고 소장(「가재설총」).
『燕彙』(필사본), 미국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열하일기」, 「담헌설총」).
『燕彙』(필사본), 연세대 소장(「열하일기」, 「담헌설총」).
『燕彙』(필사본), 국민대 소장(「담헌설총」).
김창업, 『老稼齋燕行日記』(필사본), 규장각 소장(奎 4538).
_____, 『燕行日記』(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燕行日記』(필사본), 장서각소장.
_____, 『燕行日記』(필사본), 일본 동경대 아가와(阿川)문고 소장.
_____, 『연힝일긔』(한글필사본), 규장각 소장(가람 古 915.2-G415g).
_____, 『연행일기』(한글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_____, 1914 『稼齋燕行錄』(연활자본), 朝鮮群書大系續續 제7집, 朝鮮古書刊行會.
박지원, 『열하긔』(한글필사본), 명지대 소장.
_____, 『열하일긔』(한글필사본), 동경대 소창문고 소장.
_____, 1900~1 『연암집』(금속활자본).
_____, 1911 『열하일기』(연활자본), 조선광문회.

_____, 1932『연암집』(연활자본), 大東印刷所.
홍대용,『湛軒說叢』(필사본), 규장각 소장(奎 4908).
_____,『湛軒燕記』(필사본), 규장각 소장(奎 7126).
_____,『湛軒燕行記』(필사본),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_____,『연행록』(한글필사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_____,『을병연행록』(한글필사본),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소장.
_____, 1939『湛軒書』(연활자본), 신조선사.

▣ 기타 자료

김창집,『夢窩集』, 한국문집총간 158.
김창업,『老稼齋集』, 한국문집총간 175.
金景善,『燕轅直指』.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2005『(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Ⅲ·Ⅳ, 평민사.
櫻井義之, 1979『朝鮮研究文獻志-明治·大正編』, 龍溪書舍.

2. 연구논저

김명호, 2010「『열하일기』 이본의 재검토」,『동양학』 48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김태준 외 역, 2001『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김태준, 2001「『열하일기』 한글본 출현의 뜻」,『민족문학사연구』 19집, 민족문학사학회.
대동한문학회, 2011『대동한문학』 제34집.
소재영 외 주해, 1997『(주해)을병연행록』, 태학사.
윤경선, 1997「18세기초 장동 김씨 일문의 연행체험-김창집의 「연행훈지록」을 중심으로」,『한국한문교육』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이장우, 1986「「稼齋燕行錄」과 「연행일기」-노가재 김창업의 국한문 연행록」,『국회도서관보』 187호.
임창순, 1967「연힝일기-김창업의 연행일기 국역본」,『국회도서관보』 7월호.
정훈식, 2012『을병연행록』, 경진.

Abstract

The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Yeonhaengrok Revealed by Tracing the History of *Yeonhui*

Kyung Hee RHO

The experience of Yeonhaeng by *Chosun* writers were continuously distributed and transmitted through a specific form of literature, known as Yeonhaengrok. It provided indirect experience of Yeonhaeng and also functioned as a guideline for later writers preparing for Yeonhaeng. Among the well-known works are "Nogajae Yeonhaeng Ilgi" (1712-3) by Kim Chang Up, "Damheon Yeongi" (1765-6) by Hong Dae Yong, and "Yeolha Ilgi" (1780) by Park Ji Won. These works were combined and transmitted as an edited version, "Yeonhui", which demonstrates their popularity through the eras. In this study, various versions of Yeonhui - hand-copied, metal-typed, in Chinese, or in Korean - and related materials are compared to reveal how they were distributed and transmitted. Characteristic features include (1) the circulation of hand copies in late Chosun, (2) publication in Korean, and (3) publication in metal-typing in modern era. The implications of these features in the publication culture of late Chosun are discussed.

Key words : Yeonhaengrok, *Yeonhui*, Kim Chang Up, Hong Dae Yong, Park Ji Won, Distribution, Transmission